

메타버스와 메타노이아

- 신명기 10:12-15, 로마서 12:1-5, 누가복음 17:20-21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 믿는 종교라는 생각입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절반만 맞는 생각입니다.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하지만, 살아 있을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삶에 만족을 못 느끼고 딴 세상, 다음 생애로 가서 좀 더 잘 살아보려는 기대를 품으며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뤄지는 곳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지금 여기”를 제외하고 천국을 논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눅17:20-21을 보니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천국이 언제 오느냐 묻지 말라고 하시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한 첫 번째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였습니다. 예수의 거의 모든 비유와 가르침은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새로운 이해는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천국을 받아들이고 누리기 위한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리스 원어로 메타노이아(metanoia)인데, “변화, 초월, 다음, 위” 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닌 접두사 메타(meta)와 마음, 정신을 의미하는 누스(noos)에서 파생된 노이아가 합쳐져서 생긴 말입니다. 문자적 뜻은 “마음의 변화”가 되겠지만 성경은 회개라고 번역했습니다. 천국은 어느 곳에 있어서, 어떤 때에 와서 그 시공간으로 이동해서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변화를 통해 지금 여기에서 체험하게 되는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도 이상향을 다룬 그의 책 제목을 “유토피아”로 정해서 좋은 곳(eu-topia)과 없는 곳(ou-topia)으로 해석할 여지를 둬으로써 이상향은 장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은연중 강조했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으로부터 다른 세상, 대체 세계에 관심을 돌리는 것은 일부 종교인뿐 아니고 일반인에게도 흔한 일이다. 최근 메타버스에 관한 지나친 기대가 그 한 예입니다. 메타버스는 아까 살펴본 meta라는 접두어에 verse가 결합되어 생긴 단어인데요, verse는 universe에 보는 것처럼 세계, 영역을 뜻합니다.

김상균 교수는 메타버스를 “나를 대변하는 아바타가 생산적인 활동을 영위하는 새로운 디지털 지구”라고 정의합니다. 아바타는 현실의 제약을 넘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게 해줍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새로운 행성을 개척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새로운 디지털 세계를 만듭니다. 이전에도 메타버스와 유사한 기술이나 컨셉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메타버스에 관한 폭발적 관심은 기술의 성숙도와 코로나19 상황이 만나서 생긴 특별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론 매체에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메타버스에 관한 기사는 대부분 경이감과 기대감으로 색칠돼 있습니다. 물론 메타버스에는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가 마치 만병통치약이나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장밋빛 미래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이면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해결하기 힘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메타버스가 주는 혜택은 디지털 빈부격차에 따라 사회 양극화를 더욱 조장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거주민도 사람이므로 그곳에서도 사기, 폭력, 학대 등의 온갖 범죄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메타버스에서 인간의 악한 본성이 증강돼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가진 근본적 한계는 그것이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만든 임의의 세계라는 점입니다.

메타버스에 관해 이야기할 때 ‘세계관’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으로블록스라는 플랫폼이 됐든 제페토라는 플랫폼이 됐든, 메타버스를 제작하는 업체는 창조주처럼 만물이 상호작용하는 법칙을 정하게 되고, 그 세계에 거주하는 존재는 모두 그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는 아바타가 움직이는 방식에 적용될 수도 있지만, 복잡하게는 그 세계 속에서 존중받는 가

치가 무엇인가를 정하는 데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운영하는 메타버스에서 가장 존중받는 가치가 무엇일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이 개발된다고 할지라도 그 세계도 무로부터 창조돼야 하므로 모든 것이 새롭게 정해져야 합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 의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과학자 프랑켄슈타인처럼,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모른다는 점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현실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마치 메타버스를 통해 단번에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도리어 메타버스 안에서는 인간의 탐욕과 자본의 지배력이 극대화돼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의 삶에 충실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바로 천국이 이곳, 저곳, 이 때, 저 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비록 죄 많고 불만족스럽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의 말씀처럼,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마음의 변화, 회개입니다.

롬12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께서는 마5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메타노이아의 핵심은, 우리가 필요한 회개의 핵심은, 마음의 변화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을 믿으며, 이생에서 성실하고 충실한 삶을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똑같은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됩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실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게 됩니다. 메타노이아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일종의 메타버스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톨킨의 책 “반지의 제왕”을 보면 3권 끝에서 두 번째 장에 “샤이어 소탕 작전”이라는 제목 장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피터 잭슨 감독이 만든 영화에서는 생략되어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프로도가 절대반지를 운명의 산에서 파괴함으로 악의 근원인 사우론은 패배했습니다. 선이 악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 챕터의 내용은 호빗족 프로도 일행이 절대 반지를 파괴하고 고향인 샤이어로 돌아와서 생기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톨킨의 문학작품을 책이나 영화로 접해보지 않은 분이 계시면 꼭 접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 9월 2일부터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톨킨의 작품을 드라마로 만든 것을 방영하기 시작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제작비로는 사상 최대의 제작비를 들여서 만들어 졌고,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최근 톨킨 전도사를 자처하고 강의나 강연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톨킨의 문학 세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 댓가도 없이 좋아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다음 학기에는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톨킨의 문학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여 대학 구성원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톨킨의 문학의 진수를, 특히 기독교 인문학적 관점에서, 많이 알려드리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프로도 일행이 샤이어로 돌아와 보니 마을 주민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험벗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대장이라는 자가 부하들을 데리고 마을로 들어와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을 돕는 척하더니 마침내 정체를 드러내 마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저항하던 호빗들은 죽거나 감옥에 갇히고, 어떤 호빗들은 악당의 끄나풀 노릇을 하며 동족을 괴롭혔고, 곳곳에 규칙서라는

벽보가 붙어 있어 주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유토피아적인 샤이어 마을이 디스토피아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긴 프로도 일행은 샤이어를 장악한 악당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마을 주민을 설득해 힘을 합해 악당들을 쉽게 물리쳤습니다. 마지막 대결에서 대장이라는 자와 마주치게 되는데, 알고 보니 그는 앞선 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친 악한 마법사 사루만이였다. 샤이어 밖의 큰 세상에서는 선악의 대결에서 악이 패했음에도, 샤이어 주민들은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무력한 사루만이나 악당들을 아직도 두려워하며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루만은 부하의 칼에 찔려 죽고 샤이어는 다시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은 영화에서 생략된 이 장이 톨킨의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지의 제왕’ 세 권 전체의 5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선과 악의 우주적 대결에서 이미 선이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소식이 삶의 구석구석에까지 파급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 나라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오랜 일제 강점기가 일본 왕의 항복 선언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지 못한 깊은 산골 마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일본 순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패망했다는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마을에 온다면 아주 간단하게 악의 무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일본이 패망하기 전에도 수많은 애국지사들은 악이 분명히 패하고,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감옥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옳은 길을 갔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악과 죽음의 근원은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선과 악의 우주적 대결에서, 생명과 죽음의 최후의 대전에서 선과 생명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횡행하고, 악인이 더 잘되는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과 악이 대결할 때, 참과 거짓 싸울 때, 과감하게 진리의 편에, 정의의 편에 서지 못하고, 구차하고, 웅색하고, 야비하고, 비루한 선택을 합니다. 크고 작은 손해를 보기 싫어서, 줄서기, 편가르기, 요행, 새치기, 편법 등에 의지합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신념을 버리기도 합니다. 돈, 편안한 미래, 부귀 영화를 위해

우리의 양심을 팔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즉, 현실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신념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유혹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평정을 유지하면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라”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통치, 천국은 이미 와 있습니다. 단지 우리 삶의 구석 구석에 충분히 스며들지 않았을 뿐입니다.

피터 버거라는 사회학자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독교 안내서”(Questions of Faith: A Skeptical Affirmation of Christianity, 2004)라는 책에서 믿음은 일상적인 실재 배후에 더 깊은 실재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다른 실재, 다른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실재 배후에 있는 더 깊은 실재를 보느냐, 보이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보그는 “기독교의 심장”(The Heart of Christianity, 2003)라는 책에서, 믿음의 4요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 동의(assent)입니다. 즉 믿는 내용을 지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구원에 대해 우선 기독교의 주장을 알고, 이해해야 하겠지요. 둘째는 신뢰(trust)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라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신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예가 바로 부력(浮力)입니다. 어린이에게 수영을 가르칠 때 긴장을 풀고 가만 있으면 물에 뜬다고 알려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셋째는 충성(faithfulness) 혹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해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네 번째 요소는,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새로운 방식으로 보기(seeing)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 우주에 대해 갖고 있던 큰 그림,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모든 사물의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즉 메타노이아입니다.

저는 최근 몇 개월 동안 메타버스와 메타노이아에 대해 여러 차례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최근 제 생각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메타버스보다 중요한 메타노이아”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요즘은 메타버스와 메타노이아가 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노이아가 없는 메타버스는 위험합니다. 악마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가 되지 않은 메타노이아, 메타버스로 구현되지 않은 메타노이아는 공허하고, 무기력하고, 허망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마음, 정신, 개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방식이 바뀔수록, 세상 자체를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장소나 시간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세계를 새롭게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 드립니다. 죄 많고 은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을 믿으며, 이생에서 사리에 맞는 게 하셔서, 이생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내생에서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다함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